

의약품 사용 과오 사례와 복약상담 비법

약사통신 연수교육 '셀링포인트 및 이론' 강좌 개시

2012년 9월 10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약사통신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 www.kpa-news.co.kr)'이 주요 질환 및 관련제품에 대한 셀링포인트 및 이론 강의를 2012년 10월 8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약사통신연수교육은 약사 기본이론과 약국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10월 8일 동화약품 후시딘밴드를 시작으로 동국제약 센시아, 일동제약 캐롤에프, 보령제약 세라비, 앤디 아로마상품에 대한 이론 강의와 셀링포인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② 구갈의 원인이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항콜린성 약물 때문이라는 것을 몰라 오랫동안 고생한 노인 환자가 있었다.

복약상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서 올바른 복용을 돕는 것 또한 약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약사의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복약상담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약사의 꾸준한 노력과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6. 약물 상호작용 관련

Case

① Alendronate는 음식에 의해 흡수가 저해되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다른 음식을 섭취하기 최소 30분 전에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환자가 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우유가 좋다는 생각에 처방받은 alendronate를 우유와 함께 복용한 경우가 있다.

② Quinolone계 항생제는 제산제와 함께 복용시 흡수가 저해되는데, 위장 장애를 우려해 임의로 제산제를 복용한 경우가 있다.

복약상담

일반의약품으로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나 음식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의약품 사용과오에도 환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약물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약사들조차도 약물 상호작용들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산 및 체계화된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문의할 때 약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물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 약물 상호작용의 지나친 강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타민이나 고단백질 음식에 의해 파킨슨병 치료제인 Levodopa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노인들에게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적인 영양 결핍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에 따른 맞춤형 복약상담이 필요하다.

7. 잘못된 약물 상식

Case

① 캡슐에 들어있는 것이 무조건 마이신(항생제)이라고 생각하여 정자 알약으로 되어 있는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② 항생제를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증상이 소실되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환자들이 많다.

복약상담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환자는 자기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많은 의료 상식을 습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약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의료상식이 오히려 치료과정에 방해가 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약사는 처방받은 약물에 대한 약물 정보를 주는 역할 외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8. 약물의 임의 복용

Case

① 몇 년 전에 위염 증상으로 받았던 약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때와 같이 속이 쓰리다며 약물 복용의 가능 여부를 묻는 환자가 있다.

② 언니가 감기약으로 받은 약을 동생이 복용해도 되냐고 묻는 보호자가 있다.

복약상담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타인의 약을 임의로 복용을 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약물을 투약할 때 대부분 각 약물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서나 지침서가 같이 투약되지 않고 있고 약국 여건상 투약 시점에서의 충분한 복약지도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간략한 구두설명과 함께 약을 투약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환자 임의에 의한 오투약 사고로 직결되기 쉽다.

따라서 매번 투약하는 약물이라도 개별 약물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복약 안내문을 동봉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상이 같다 하더라도 예전에 처방받았던 약이나 타인의 약은 합부로 복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9. 부적절한 복약상담 : 약물 기대효과

Case

① '마약성 진통제'이면서 '진해제'로도 사용될 수 있는 codeine을 단순히 '진통제'라고 설명하여 다음 진료 전까지 환자는 기침으로 고생하면서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② 혈압약으로 분류되지만 혈압이 정상인 당뇨환자에게 단백뇨 감소를 위해 처방되기도 하는 enalapril을 '단백뇨 또는 신장약'이 아닌 '혈압약'이라고만 알려 주어 흥분한 환자가 진료과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경우가 있다.

③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인 hydroxyzine을 정신과에서 '수면유도제'로 처방하였는데, '콧물약'으로 잘못 설명하여 복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복약상담

동일한 약물일지라도 환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기대효과를 가지고 처방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약물에 대한 설명만을 듣게 되는 경우 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올바른 약 복용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약상담시 약물 위주보다는 환자의 질병상태와 연관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로부터의 정보, 처방전으로부터의 정보, 첨부문서나 다른 문헌으로부터의 정보, 의사로부터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복약상담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가 환자에 관한 임상적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의 구축과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대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전화 상담

Case

환자 보호자가 전화하여 사망한 환자가 쓰던 진통제 파스를 보호자가 써도 되냐고 문의하였을 때, 담당약사는 보호자가 진통제 파스라고 하니 괜찮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보호자가 질문한 약은 일반 진통제 파스가 아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취제'였고, 이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입원한 경우가 있었다.

복약상담

전화상담은 직접 대면으로 하는 복약상담보다는 정확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진통제 파스라고 한 것을 약사 역시 그대로 믿고 답변을 해 의약품 사용과오가 발생한 경우이다. 같은 약물을 가지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약품 식별이나 약품의 효능을 묻는 전화 상담인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기록을 찾아 정확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답변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조제지침

· 조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

1. 조제에 앞서 약사는 항상 처방전을 검토해야 한다.
2. 환자 프로필은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약사는 처방전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3. 조제실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4. 의약품 창고는 의약품을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5.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기 전에 조제 과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확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비자들을 위한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방법 10가지

1. 당신의 처방에 대해 의사와 상담 하십시오.
2.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을 꼭 읽어보십시오.
3. 의약품이 치료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알아두십시오.
4. 의약품을 받았을 때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5. 약사에게 그 의약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6. 처방의약품에 대한 문서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7. 의약품을 다시 조제해갈 때, 같은 약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8. 의약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9. 의약품 정보 가이드를 구매하십시오.
10. 시각장애가 있으시다면 약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맺음말

· 의약품 사용과오는 환자의 치료 경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조제를 담당하는 약사는 항상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여러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약사는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약물사용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해 항상 경계하고 긴장해야 함

· 의약품 사용과오는 약사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약국과 병원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 무너지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의 몇 배를 기울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의 공적 보고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의약품 사용과오에 대한 관리 및 보고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앞으로는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약사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과오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Reference

- 손기호, (실무중심의)병원약학, 군자출판사, 2009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의약품 사용과오 (Medication Error)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8. 1
- 이조미, 정원희, 김정미, 이영미, 복약상담을 통한 Medication Error의 예방 ?외래 환자 사례 중심으로-, 병원약사회지 제 20권 제 2호 183-187p, 2003
-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_(11) -NCC MERP의 조제 지침 -, 약학정보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지 Pharm Story, 2011.5.30.
- NCC MERP, Recommendations to Enhance Accuracy of Dispensing Medications. at: <http://www.nccmerp.org/council/council1999-03-19.html>
- USP, Ten Ways Consumers Can Help Ensure That Medication Errors Are Avoided. at: <http://www.usp.org/pdf/EN/patientSafety/tenTipsForConsumers.pdf>